

與 “정책 국감” VS 野 “실정 추궁”

여야 국감체제 돌입

국가재난체제·노동개혁·국정교과서 등 빅 이슈 공방 예고 10~23일, 다음달 1~8일... 총선 앞두고 민심잡기 총력전

여야가 8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각각 갖는 등 본격적인 국감체제로 전환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20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여야 모두 민심잡기에 어느 때보다 골몰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메르스 사태, 추자도 낚시배 전복사고로 촉발된 국가재난체제 문제,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선 야당의 재벌개혁,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국가정보원 해경 의혹, 미군 탄저균 반입사건 등

어느 때보다 이슈가 방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정쟁에서 벗어난 ‘정책 국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감의 성격을 재확인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에 임하는 정신 재무장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국감은 처음 시작되는 분리국감으로 피감 기관 수만 780여 곳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경제를 죽이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열고 국감대책반에 원내 부대표단이 당번을 서는 ‘국감 당번제’를 실시해 국감장을 수시 점검할 것을 예고했다. 또 상임위원 우수국감 의원을 매주 선정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감모드’로 전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철저히 파헤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민생, 상생, 인권,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생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새정치연합의 정책 대안 능력을 보여주

는 국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철저한 감증을 다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최근 이슈가 된 여당의 방송과 포털 길들이기를, 법제사법위는 공안통치와 성완중 리스트, 국정원 해킹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대응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위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꼬집고, 국방위는 주한 미군 탄저균 비밀반입 사건 등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는 접에서 오히려 국감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나서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부실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기택 대법관 인준안 정부 결산안 통과

국회 본회의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경색으로 논란이 됐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시키고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이 확정됐다.

하지만, 박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추천됐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경색을 문제삼아 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추천을 보류했다가 본회의 하루 전인 전날 후보자로 재추천했다. 옛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장을 지낸 박 대표는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았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처리했다. 2014년도 결산안마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19대 국회는 시한 내 한 번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명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8일 서울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 기념 엠블럼. 전병헌 창당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손혜원 홍보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엠블럼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정통야당’ 창당 60주년 로고 제작

13일 사진전·18일 기념식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정통 야당 창당 60주년 기념식에 앞서 로고 제작을 완료하는 등 기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함께, 민주 60’이라고 적힌 60주년 로고를 공개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별집, 맑은 물, 사파이어를 현미경으로 바라본 모습 등 3가

지 이미지를 섞어 로고를 작성했다고 설명한 뒤 “국민을 위한 노력의 60년, 타는 목마름의 민주 60년을 이렇게 조명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간 60주년 기념사진전을 연다. 전시회는 국회 의원회관 로비, 회관과 본청 사이 지하통로에서 진행되며, 의원들이 촬영한 축하 영상도 함께 공개된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17일에는 당 지도부와 언론인이 참여하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 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 활동 방향

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18일에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시도 당별 ‘뿌리 당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원로당원과 청년당원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전 최고위원은 “11월에는 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12월 출판을 목표로 60년사도 집필 중이다. 11월 출판 기념회를 마지막으로 기념사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전경련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논의

文, 야당대표로는 처음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 대표로는 지난 달 16일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표의 한반도 구상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 인구 8000만명의 통합시장을 형성해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단일경제권

과 간도, 연해주, 동중국해 연안까지 연결하는 북방역내 경제권을 형성해 잠재성장률을 3%대에서 5%대로 올리자는 것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남북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경제 관계가 깊어지면 정치·군사적 긴장이 있더라도 파국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7월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남북경제교류 신 5대 원칙과 비전을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FTA 피해보전직불금 2천억 집행 안했다”

신정훈 새정치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들에게 지급해야 할 ‘FTA 피해보전직불금’ 중 2026억원을 미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법제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가격 하락에서 FTA가 미친 비중)를 반영해 한우와 송아지 사육 농가 253억원, 2014년 수수·감자·고구마 재배·송아지 사육 농가

323억원 등 총 577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은 각각 1667억원과 936억원으로, 기존 지원액보다 2026억원이나 많은 총 26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2013년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 전과 후 각 농가에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 차액이 2026억원에 이른다”면서 “정부는 수입기여도를 즉각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담배 판매 예년 수준...금연효과 없이 증세만”

윤호중 새정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 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 6200만갑에 근접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독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 9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 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월 2억 4000만갑, 5월 2억 7000만갑으로 점증하더니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